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04. 27.(목) 14:00 ~ 15:30
- 장 소 : 수원시홍재복지타운 4층 교육장
- 참석인원 : 총 21명 (현원 37명 대비 참석률 56.8%)

• 위원 참석 현황

▶ 참석위원 (21명)

- 민간 12명 : 김윤희, 김미영, 김분녀, 김승영, 김재용
소현이, 송명은, 윤성현, 이영안, 이영희
이은희, 장미선.
- 공공 9명 : 김범수, 김매옥, 김선규, 노현서, 석은숙
오미자, 이지효, 추영숙, 한태정.

▶ 미참석위원 (16명)

- 민간 8명 : 전상원, 권혁경, 김기자, 이성호, 이은정
장익현, 홍은화, 황갑수.
- 공공 8명 : 김미라, 김진희, 김하희, 오은정, 이동현
이윤주, 정진숙, 조영희.

• 회의 진행 및 배석

- ▶ 자체평가 및 고객만족도 결과 브리핑 : 하경희 교수.
- ▶ 협의체 사무국 : 한창호, 임복희, 이주미, 신다희, 김유림.

□ 회의안건

I. 안건토의

1.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제11차 개정(안)
2. 2022년 자체평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보고 및 논의

II. 실무분과 운영사항

1.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현황 등

III. 보고사항

1. 2023년도 운영실적 현황
2.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3. 수원시 나눔축제(가칭) 개요
4. 위원 변동사항

□ 회의내용

성인지 교육 영상시청

사무국장 : 본 회의에 앞서 수원시 각종 위원회 위원 성인지 교육실시 협조 요청에 따른 성인지교육 영상시청을 안내하고 상영함.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사무국장 : 신규위원(수원여성회 김미영 공동대표) 위촉장 수여를 안내함.

위원장 : 공동위원장을 대신해 김미영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함.

사무국장 : 실무협의체 위원장에게 성원 보고와 개회선언을 요청함.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위 원 장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6항에 의거 하여 실무협의체 위원 37명 중 참석 21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차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를 선언함.

사무국장 : 인사 말씀과 더불어 본 회의 주제를 요청함.

안 건 토 의

위 원 장 : 인사말 이후 안건토의를 진행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제11차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사무국장 :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재택근무 및 시간 단축 근무 추진계획에 따라서 공기업 1개, 출연기관 8개, 보조기관 4개 총 13개소의 협업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개정추진 중임을 보고함.

위 원 장 :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 및 질의를 요청함.

김 범 수 : 담당 부서 팀장으로 보충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들의) 각 기관의 규정 등을 참고해서 개정 ·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함

위 원 장 : 남녀 고용평등관련 법령과 복무규정 관련 공무원법 등을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면 안건 처리코자 요청함.

모 두 : 동의 제청함.

위 원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첫 번째 안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제11차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포함.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인 22년도 자체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및 논의에 대해 진행을 주경희 교수에게 요청함.

주 경 희 : 2022년도 자체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설명함

위 원 장 :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 및 질의를 요청함.

- 송 명 은 : 현재 정자1동협의체에서 활동중이며, 시협의체 시민건강분과에서 제안했던 폐의약품 안전 관리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동협의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동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중심 역할이나 폐의약품 관리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인데 동협의체 역할과는 좀 동떨어져서 괴리감이 있음에 대한 고민과 (市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을 표현함.
- 김 재 용 : 동 협의체의 업무 대부분은 동 주민들 중심이므로, 괴리감보다는 주민복지향상 차원에서, 어떻게 더 (활동)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김 범 수 : 구 협의체가 5월 1일 字로 구성되므로 구와 연계를 강화해가면 부분 해소될 것이며, 행정기관장의 의지를 더욱 북돋움을 통해 사회보장을 강하해야 함을 피력하며, 사무국의 지원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활성화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알림.
- 김 매 옥 : 동 맞춤형 복지팀장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직능단체들의 부족한 인식개선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장이 바른 방향으로 중재할 필요성이 있으며, 같이 협업으로 주민들의 만족한 삶에 보탬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면 (주민들을) 공감으로 이끌어 조금 더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함.
- 위 원 장 : 동 협의체 외, 실무협의체와 관련된 제안이나 의견, 실무분과에 대한 의견 등 인사를 겸해 의견을 나누어 주길 청함.
- 김 승 영 : 부천시 벤치마킹의 느낀점을 설명하며, 도시문화 플랫폼 사업을구축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지원체계 확보 노력과 시민들의 직접 심사제도 도입 운영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밝힘. 부천시 소각장 리모델링 후 전시관으로의 탈바꿈 사업을 (주민의) 직접 참여로 진행되었음에 부러움을 표함.
- 위 원 장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나 실무협의체 활성화 방안 의견을 청함.
- 김 분 녀 : 작년엔 5기 계획 때문에 분과위원들이 부담스러운 한 해였음을 환기시키며, 3월에 보강된 신규위원들과 코로나19 이후에 실제 수원시 소재 아동 관련 기관들과 원활한 소통 및 공유를 통해 분과 활동이 다시 전개되고 있어서 좋다고 표현함.
- 김 선 규 : 벤치마킹(원주) 과정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하거나 가까운 산과 같은 곳에서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가지자는 분위기도 조성

김 선 규 : 되고 있으며, 서로 대화도 하면서 기존에 그냥 회의만 하다가 끝나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다른 분과도 기회가 되면 야외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건의함.

위 원 장 : 제안에 대해 감사와 공감을 표하며, 계속되었던 비대면 회의와 코로나 이후에도 회의 시간 이후에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음과 연계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추가 제안과 의견을 요청함.

김 미 영 : 협의회 고객만족도 및 자체평가 보고서란 문건을 처음 보았으며, 여기서 고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의문이 있음을 말하고, 고객은 서비스의 대상자나 수혜자로 생각되며, 고객이라는 표현 자체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올바른 것인가 하고 질의함. 또한 협의회 위원들의 위상이 높은 조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더더욱 고객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제시함.

위 원 장 : 여기서 고객이란 내부 고객 즉, 우리 위원들을 지칭하며, 외부의 제3자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 내부고객이 서비스의 대상자로 정리하고 조사한 것임을 알리며, 사무국에 고객에 대한 뜻의 동의를 구함.

사무국장 : 위원장의 질의에 동의를 표함.

김 범 수 : 김미영 위원 의견에 감사함을 표하며, 먼저,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수행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공공기관 평가에 고객만족도 조사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으며, 수원시 보조금 지원받는 13개 기관은 이에 기반한 평가 등에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항목이 있어서 용어를 그대로 계속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며, 조사 내용의 실제성과 객관성 그리고 결과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고객이라는) 용어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한다는 의견을 밝힘.

김 미 영 :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조사)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그러할 거라 생각을 했으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 설명회 등에서 주관기관에서 고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사업들은 거버넌스라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김 미 영 : 시민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주민으로서의 전문성을 전혀 생각해 주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아왔으며, 그것이 고객이라는 말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공공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서의 고객으로 보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고객은 이미 서비스의 수혜자이므로 수혜자 외에 어떤 대접을 더 해주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시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고객이라는 표현이 불편함을 제안함.

위 원 장 : 매너리즘에 빠져 만성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나보다 했는데 신규위원의 새로운 시선에서 의견을 주어서 감사함을 표하며 의문에 대한 계속 적인 질의를 요청함.

이 영 희 : 역량 강화교육 연 1회가 부족하다는 발표를 보고, 코로나 이후 SNS 활용에 익숙해진 상황을 반영하여 교육 방법의 변화를 추진하면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며, 참여 집중증진을 위해 교육 중간의 퀴즈와 교육 종료 후 설문지 작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며, 소통과 참여의 중요성을 느끼고 각 동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발표에 동의하며, 협의체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함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민관이 협의하는 소통과 참여의 중요성을 재차 표현함.

위 원 장 :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교육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에 빠졌음을 언급하며, 다시 대면 회의와 교육 등에 참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코로나 시대에 비해) 불편해졌음을 표현함. 교육의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표하고 의견에 감사를 표함.

더 이상의 의견이 없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안건 2022년 자체 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및 논의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포함.

다음 순서로 실무분과 운영사항을 분과장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였으나, 중간중간 의견과 같이 보고를 하였고 시간 관계상 서면을 갈음하고자 한다며 의견을 구함

모 두 : 동의 제청함.

위 원 장 : 분과 공동사업은 (회의자료의)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사항을 사무국장에게 요청함.

보 고 사 항

사무국장 : 시간관계상 중요사항 중심으로 '2023년 운영실적현황 (4월20일 기준)',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수원시 나문축제 개요', '위원변동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함.

위 원 장 : 국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며, 나눔 축제 행사에 대해 담당팀장에게 보완설명을 요청함.

김 범 수 : 지금 사회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취약계층 등 긴급 위기 가구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동 협의회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기에 지역사회와 같이 이웃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데 있어서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손 잡아주는 개념이나 지속적인 나눔과 관심을 갖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협의체의 활동내용과 나눔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개의 주제로 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 동참하겠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함.

위 원 장 : 큰 아웃라인은 구체화 되어있는데 세부사업에 들어갈 콘텐츠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위원들의 좋은 의견 요청함.

모 두 : 의견없음.

위 원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혹시 안건 외에 추가적인 논의 사항이나 제안사항을 요청함

모 두 : 의견없음.

폐회선언

위 원 장 : (좌중확인 후)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의 제안을 사무국에서 향후 업무에 꼭 반영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하며, 제2023년 제2차 실무협의회 회의 폐회를 선언 함.

※ 2023년 제2차 실무협의체회의 의결사항

<안건토의>

1.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제11차 개정(안)
: 원안대로 의결함.
2. 2022년 자체평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보고 및 논의
: 원안대로 의결함.

□ 관련사진

